

아 · 름 · 다 · 운 살 · 사 람

/category/bosal.asp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4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572 호

17

“노인들 말벗되기 즐겁습니다”



마포FM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

홍성기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홍성기 할아버지는 오늘도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웃음을 전한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 홍성기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단한 자아혁신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활기찬 삶을 스스로 누리는 생각을 버리고 젊게 살도록 노력합니다.”

3월 28일 오전 6시 시그널 뮤직에 이어 홍성기(68)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FM 100.7MHz(마포FM)의 전파를 타고 청취자에게 전달된다. 마포FM은 마포지역 주민들만 청취할 수 있는 지역 FM 방송이지만 홍 할아버지의 진행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 못지않게 프로수준이다. 홍 할아버지는 1993년 KBS 사회교육 방송의 '인생은 60부터' 프로그램에서 감의를 했으며 MBC, SBS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 MC를 맡았던 전문가다. 홍 할아버지가 마포FM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노인들에게 늘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노년기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마포FM의 개국을 앞두고 편집국장 이 찾아와서 진행을 맡아달라고 했을때 즐겁게 승낙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취자들이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포FM의 '아름다운 인생'은 홍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박계승 한국노인복지전문가협회 회장, 박정준 서울국학운동 사무국장, 이철진 공덕한의원 원장, 김강주 민요강사, 강영주 가요강사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또한 김명자, 임지연 주부가 어르신 소식 리포터로 활동중이다.

출연진 모두가 무보수 자원봉사자다. 그러나 모두들 노인들의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위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즐겁게 일을 한다. 방송 내용이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로 소재로 삼다보니 녹화중에는 소박하고 정겨운 이야기가 많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홍 할아버지는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다음주 방송에서 할 진행자 멘트를 직접 작성한다. 진행이

에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청취자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다.

홍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추상적인 생각보다 그냥 말벗이 되어주고 싶다. 노인문제를 서로 이야기 하고 나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에 위안은 줄 수 있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경로당에서 하루 놀이를 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였지만 평생 배워야 한다는 신념은 더욱 공고해졌다.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노인 교육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1977년 사재를 털어 서울노인대학을 설립하고 노인복지 개혁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노인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신입생모집이 되지 않았다. 경로당에 가서 노인대학이 생겼다고 홍보를 했지만 다들 늙어서 무슨 학교냐며 외면했다. 궁여지책으로 동아방송을 찾아가 홍보를 요청해 방송 출연을 하게됐고 그 인연으로 17명이 모여 첫 수업을 했다.

한때 한학기에 1000여명의 노인이 학교를 다녔지

지역사회 노인들의 소박하고 정겨운 이야기 전달 무보수 자원봉사... 진행 멘트도 직접 작성 노인대학·유치원 등 운영하며 사회교육에도 앞장 “긍정적 마음과 많이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함께 이야기 하고 고민을 나누면 웃음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생각의 변화가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에서는 말벗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홍 할아버지는 방송보다 사회 교육자로 더 유명하다. 1960년 중앙대 법대에 재학중 판자촌에 천막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친 인연을 계기로 법학도의 꿈을 접었다. 이후 연세대 대학원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했고 서울 청진고등공민학교를 세워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는 등 사회교육자의 길을 걸어들었다. 당시만해도 사회교육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주로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한글

만 지금은 지역마다 노인복지관이 생겨 노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 현재 3개반 60여명이 취미, 건강, 한글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김포, 고양 등에서 2시간 이상 전철과 버스를 타고 오는 노인들도 많았고 20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노인도 있다고 홍 할아버지는 귀띔한다.

홍 할아버지는 국제 교류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1977년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 노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노인문화협회를 조직해 현재까지 매년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의 노인대학과 처음으로 북경과 연변에서 한중 노인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아름다운 인생' 프로그램 출연진들. 앞줄 왼쪽부터 홍성기, 박계승, 김강주, 뒷줄 왼쪽부터 태한성, 박정준, 임지연, 김명자.

“서로 말은 다르지만 노인문제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이야기하다보면 어느새 한마음이 됩니다. 더불어 각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즐기다 보면 국경의 장벽도 웃음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20년동안 3국을 돌리다며 교류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했든가? 홍 할아버지의 꿈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80년 연희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개원해 운영해 오고 있다. 노인대학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다보니 노인들은 아이들이 좋아 웃고, 아이들은 웃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특히 1회 졸업한 코

즐리게 아이들이 어느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찾아올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새벽 5시엔 어김없이 일어나 베드민턴과 산책을 즐기는 홍성기 할아버지. 방송과 강연 등으로 한가한 시간이 없지만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특히 저녁에는 단전호흡, 요가를 하고 정신 수양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저의 건강 비결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웃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보면 성냄, 격정, 근심 등이 생기지 않아요. 많이 웃다보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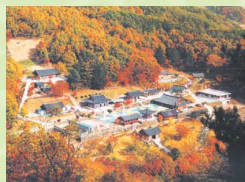
글=김두서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용문사 윤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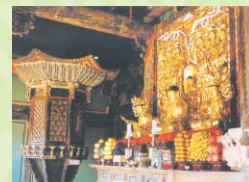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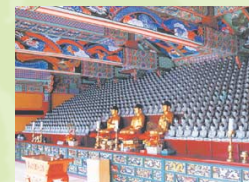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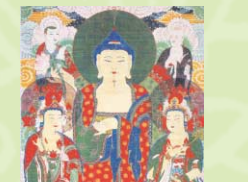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민등불사



연신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방생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저의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짐하신 분 기원합니다.

용문사 소시는 길

-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